

存在學의 概念

-形而上學 批評 試論-④

金基錫

그러나 存在속에서는 엇던 『하나』가 엄습에 엇더케하랴? 觀念論과 唯物論은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넓은 것이 있다고 외오친다 그러나 存在의 世界속에는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넓은 것이 엄습에 엇더케하랴? 하나가 그대로 여럿이요, 적은 것이 그대로 큰 것이고 엇고 좁은 것이 그대로 깊고 넓은 것임에 엇더케하랴? 우리들은 여기서 觀念論과 唯物論에 依하여 代表되는 近代哲學의 그리고 近代哲學을 나흔 希臘哲學의 根本限界를 보는 것이다.

希臘哲學은 만흔 知慧을 人間의 思惟에 보내었다. 그러나 希臘哲學은 먼저 그 자신의 限界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안해서는 안된다. 希臘哲學은 『하나』를 생각하는 哲學인 것이다. 넓은 意味의 『이데아』를 생각하는 哲學인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를 어태까지던지 『여럿』의 背後에 보려고 하는데서 그것은 다시 『하나』를 『여럿』으로부터 가르치는 哲學이 나섰다. 希臘哲學은 이 『하나』를 생각하는데서 시작하고 이 『여럿』을 갈러놓는데서 손을 떼인다. 『하나』가 그대로 『여럿』이라고 보는 哲學이 업슬가? 瞬間이 그대로 永遠이요 直線이 그대로 圓環이라고 보는 哲學이 업슬가?

우리들은 存在에 대한 思惟가 事實에서 出發해야할 것이고 假定에서 出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存在에 대한 思惟가 事實에서 出發한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우리들은 觀念論과 唯物論이 엇던 假定에서 出發해야 存在에 대한 人間의 思惟를 마춤내 救援할 길이 업는 그릇된 자리에 잇글엇슴을 보았다. 우리들은 存在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한 개의 事實인 그대로 기피 反省하지 안혀서는 안된다.

眞實한 存在로서의 個物.

存在는 時間에 잇서서 주어진다. 存在는 『場所』에 잇서서 주어진다. 그리고 存在는 무단히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진다. 이것밖에 우리들은 存在에

대해야 아는 것이 업나? 이 基本理解에서부터 우리들의 存在에 대한 思惟가 出發해야 한다. 우리들은 存在를 어디까지던지 存在로 불러야할 것이요, 精神이니, 物質이니하는 概念을 가져올 것이 아니다. 存在를 存在로부터 理解하려는 存在論이 存在를 그背後에 있는 것으로부터 說明하려는 存在論에 빠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存在는 時間的, 『場所』的 一般者이다. 이 時間的, 『場所』的 一般者의 自己限定에 있어서 存在의 世界가 成立된다. 存在가 時間的, 『場所』的 一般者라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周圍에 있는 만흔 것들이 부단히 時間에 있어서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임을 본다.

모도가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임은 時間속에 잇는데서 遂行된다. 存在는 運動속에잇고 運動은 時間속에잇는것이아니면 아니 된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意味』란 것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意味』는 存在가 보이는 어떤 『일』이요, 存在 그 자신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存在의 性格 또는 關係로 잇는 것이요, 자기가 한 개의 存在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지 않는 『意味』는 움직이는 存在에 있어서뿐 보여 진다. 움직이는 存在를 떠나서 움직이지 않는 『意味』란 것이 자기를 나타낼 길이 업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周圍에 있는 만흔 것들이 부단히 『場所』에 있어서 열매여 잇고 이 열매임은 『場所』를 차지하는데서 構成된다. 存在는 緣起속에 잇고 緣起는 『場所』속에 잇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사람들은 열매이지 않는 것으로서 無란것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無는 存在의 背景으로 存在의 뒤에서 부단히 存在를 싸는 것이니 無는 存在를 나허놓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存在는 無속에 잇고 無는 存在속에 숨여든다. 存在는 無와 存在 사이를 □□한다. 存在가 『場所』를 버서나기는 커녕, 흔히 열매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온 이 無란 것조차 자기 안닌것과 서로 열매이면서 비로소 無를 無로 만든다고 보지 안허서는 안된다.

存在는 時間的, 『場所』的인 一般者이다. 이 時間的, 『場所』的인 一般者는 무단히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진다. 存在가 時間에 있어서 주어지는데서 하나인 有限한 個物이 成立된다. 存在가 『場所』에 있어서 주어지는데서 여럿인 有限한 個物이 成立된다. 存在가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지는데서 하나이요, 여럿인 그리고 有限하면서 無限한 個別的인 一般이 成立된다. 이 個別的 一般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個物이란 것이 잇슴을 안다. 이 個物이란 것을 떠나서 存在란 것

이 주어질 길이 엮는 것이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책이나 나는 모도 時間에 있어서 주어지는데서 한가지로 存在로 불려진다. 책은 어디까지던지 책이요, 나가 아니고, 나는 어디까지던지 나요, 책이 아니니 가튼 時間 및 『場所』에 있어서 주어지면서도 책은 책으로, 나는 나로 자기를 限定하지 안허서는 안된다. 빗계서는 지금 비가 나린다. 비 나리는 소리는 바람 부는 소리는 아니다. 비 나리는 소리는 바람 부는 소리를 否定하면서 자기를 비 나리는 소리로 限定하고 바람 부는 소리는 비 나리는 소리를 否定하면서 자기를 바람 부는 소리로 限定한다. 책이 나라고 하라. 책이 비 나리는 소리요, 책이 바람 부는 소리라고 하라. 그때 책은 자기를 否定하는것을 가지지 못한다. 자기를 否定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限에서 자기를 엮던 것에 대하여 그것이 아닌 자기로 限定할길이 엮는 것이다.

存在는 모도 이 자기를 限定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개의 個物로 주어진다. 그리고 엮던 個物이 자기를 限定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다른 個物을 超越하지 안허서는 안된다. 그것이 다른 個物에 대하여 자기를 絕對的인 他者로 만들지 안허서는 안된다. 이 자기를 限定하는 일에 있어서 個物이 成立되고 個物이 成立되는데 있어서 헤아릴 길이 엮는 廣大한 世界가 成立된다. 個物은 진실로 世界의 實體이요, 그 基礎인 것이다. 이 個物에 대한 思惟로부터 存在 및 存在의 世界가 바로 理解되지 안허서는 안된다.